

京畿中小企業의 現況과 對策

安 台 鎬

◁目 次▷	
I. 地域産業과 中小企業	2. 雇 傭
II. 京畿地域의 中小企業現況	3. 原資材價格
III. 經營의 現況	4. 原資材購入狀態
1. 雇傭狀況	5. 販 賣
2. 生産 및 稼動狀況	6. 製品價格
3. 原資材 補給狀況	7. 資金事情
4. 販賣狀況	8. 總所要資金
5. 財務狀況	9. 在庫狀況
IV. 中小企業의 景氣展望	V. 中小企業의 問題點
1. 生 産	VI. 改善方向

I. 地域産業과 中小企業

中小企業은 일반적으로 地域經濟와 密接한 關係를 갖고 發展해 온 대표적인 企業形態이다. 地域的인 特定商品 내지 關聯商品의 그룹을 産業이라고 한다면 中小企業은 바로 「地域産業」 또는 「地方産業」(local industry)으로서 그 特徵과 性格을 갖게 마련이다. 원래 中小企業이 「地域特化産業」(localized industry)으로서 開發하게 된 그 歷史的인 근원을 살펴보면 일찌기 A. 마아살에 의하면 ① 氣象과 土壤의 性格 등에 의한 自然的 條件과 ② 宮廷의 庇護 ③ 統治者에 의한 計劃的인 導入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產地企業의 경우를 본다면 事情은 다르다. 즉 ① 特定地域에 대한 集中化 傾向과 ② 特產品인 消費財中心의 生産活動 遂行 ③ 原料와 勞動力 調達의 地域的 依存性 ④ 生産方法上의 傳統的인 技術 및 勞動集約性 그리고 ⑤ 農業構造와의 關聯性과 ⑥ 事業規模의 零細性 등의 內容으로 要約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固有의 地域産業의 特殊性마저도 우리나라 産業構造의 動的인 變化와 環境에 따라서 달라져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어 急速한 高度成長과 構造的인 變化에 對應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그 變化를 造成하게 한 要因으로서 는 첫째 技術革新이고, 둘째 需要構造의 變化이며, 셋째로는 勞動力의 移動, 넷째

는 貿易의 自由化 등을 들 수 있다. 즉 地域産業의 대부분이 傳統的이며, 手工業的인 多種 小量生産活動으로서 特定需要 내지 地域市場에 結付된 小規模 零細工業이었던 것이 이제는 技術革新의 進行과 이의 전반적인 普及으로 새로운 原材料와 代替品이 나오게 되었는가 하면 作業의 機械化와 規格品の 多量生産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高度成長에 따른 生活水準의 高度化와 生活樣式의 變化에 의한 產地製品에 대한 需要變化마저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生産方法과 生産手段에 있어서의 勞動力 不足現象에 따른 勞動集約的 依存性과 低賃金構造의 崩壞 그리고 貿易自由化의 進展에 수반해서 外國製品의 進出 등에 의한 地域産業의 存續條件마저도 어렵게 되었다는 環境變化를 들 수 있다. 이러한 要因들은 다시 ① 技術革新으로 인한 地域産業에 있어서의 生産技術의 機械化와 近代化 그리고 合理化를 促進하게 하였고 ② 需要構造의 變化에 있어서는 生活水準의 高度化와 高級品の 需要增大라는 형태로 地域産業에 衝擊을 주었는가하면 ③ 貿易의 自由化로 인해서는 原材料의 入手가 容易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輸送機關의 발달과 流通革新의 進行은 運賃코스트와 메이커 消費者와의 連結을 圓滑하게 하였다는 點이다.

地域企業은 産業構造의 構造的인 變化와 企業을 둘러싼 社會 및 經濟環境의 變化에 對應해 나가게 됨으로써 自體의 存續과 發展의 가능성을 스스로 찾아 갖게 되었다는 點이다.

그런데 여기서 地域産業을 類型化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發展指向的인 것으로서는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① 生活樣式의 變化에 따라 消費需要의 推移에 적극적으로 對應해 나가는 地域과 ② 産業構成의 重工業化에 따라서 需要增大의 可能性 있는 製品을 生産하고 있는 地域 ③ 새로운 原材料와 新製品의 開發 등 技術革新의 進展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에 對應해 나가려는 地域 ④ 輸出市場의 開拓과 海外市場의 變化에 따라 이에 對應해 나가려는 地域輸出市場의 開拓과 海外市場의 變化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對應해서 輸出이 增大되어 가고 있는 地域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停滯的 내지 衰退的인 傾向이 나타나고 있는 地域은 일반적으로 生活樣式의 變化에 따라서 需要가 減退하거나 또 手工業的인 生産方式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地域도 있다.

이상과 같은 각 類型別 特徵와 아울러 環境變化가 일어나더라도 地域産業이 轉換을 안하게 되는 理由를 본다면 ① 生活樣式의 變化에 의한 需要의 限界 ② 採算上의 理由 ③ 勞動力節約 ④ 近代化와 合理化 ⑤ 系列・下請再編成 ⑥ 기타 등으로 들 수 있겠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企業轉換에 있어서의 問題點으로 指摘되는 것은 ① 技術者 등의 確保難 ② 技術習得難 ③ 過當競爭 ④ 新販路開拓難 ⑤ 資金調達難 ⑥ 其他 등으로 나누어 열거할 수 있다.

특히 地域企業에 있어 앞으로도 계속 問題點이 될 根本的인 內容은 첫째 地域企業의 規模의 零細性이나 일반적인 現象으로 小規模 零細인 것은 階層分化의 危機에서 免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點이다.

둘째로는 企業의 經營에 관한 問題이다. 즉 企業經營과 家計와의 未分難상태하에서 地域 產業이 갖는 傳統的인 特性과 落後된 殘滓 등의 複合的 經營으로 企業人 내지 經營者의 意識構造의 革新이 問題가 된다는 點이다.

세째로 地域產業問題는 地域經濟를 둘러싼 諸般問題와 關聯해서 파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地域產業에 대한 再開發과 支援政策 등은 政府 및 地方公共團體의 地域社會經濟政策과도 關聯해서 파악되어야 한다.

끝으로 中小企業政策의 한 部分으로던가 아니면 全般的인 包括的政策의 一環으로서 地域產業을 취급해서는 결코 안 되며 特殊的이고도 地域的인 特性에 適合한 具體的인 政策으로서 認識하고 파악되어야 한다는 問題이다.

II. 京畿地域의 中小企業現況

京畿地域은 總 11,030km²의 面積에 全國人口의 13.0%를 차지하고 494萬名이 居住하는 地域으로서 人口의 平均增加率은 4.4% 밖에는 안 되지만 行政區域은 6個의 市에 19個의 郡, 그리고 4個의 區와 194個의 邑面에서 4,562個의 里洞을 갖는 地域이다. 7月 1日을 기하여 仁川의 直轄市昇格과 京畿地域內의 松炭·東豆川 그리고 廣州 등 地方이 市로 新設되었는 가 하면 全國에서 3位를 차지하는 人口規模와 1平方킬로 當 427人이라는 높은 人口密度를 가져 서울의 隣接地域인 近郊로서 京仁圈을 形成하고 있는 地域이기도 하다. 그런데 京畿 地方에 있어 產業構造를 본다면 80年末 現在로 다음 <表 1>과 같다.

<表 -1> 京畿地域의 產業構造

(京 畿)		(全 國)
13%	農 林 水 產 業	17%
54%	鑛 工 業	31%
33%	社 會 間 接 資 本 其 他	52%

資料：中小企協中央會 京畿支部, 1981.

이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京畿地域은 首都 서울에 隣接한 關係인지 모르나 農林水 產業은 全國의 17%밖에 안되는 미약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데 反해서 鑛工業과 특히 社 會間接資本部門에 있어서는 각각 全國의 31%와 52%라는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表 2>에서 企業構成의 內容을 본다면 總企業體數 17,603個 가운데 大企業은 372個로서 全體의 4.9%를 차지하고 있고 中小企業은 7,231個로서 全體의 95.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從業員數에 있어서는 全體 522千名 가운데 大企業은 237千名(44.2%)인데

<表 2> 企業構成의 內容

80.12.31 現在

區 分	年 度			
	77年	78年	79年	80年
計	3,282	5,131	7,035	7,603
大 企 業	186 (7%)	354 (6%)	352 (4.9%)	372 (4.9%)
中 小 企 業	3,096	1,681 (32%)	3,510 (49%)	7,231 (95.1%)
零 細 企 業		3,096 (61%)	3,173 (45%)	

資料：中小企業協中央會，京畿支部，1981.

反해 中小企業은 285千名(55.8%)으로 구성되어 業體數에 비교해 본다면 中小企業의 零細함을 느끼게 한다. 이들 業體가운데 輸出業體는 838個로서 全體數 가운데 11%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業體의 變動을 본다면 79년에 對比해서 80年の 企業增加는 顯著하나 大企業은 微增한데 대해 中小企業은 무려 548個 業體가 한해 동안에 激增하는 現象을 보이고 있다. 大企業 및 中小企業의 數的 增加는 77년에 對比해서 볼 때 무려 234%라는 높은 增加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企業體의 業種別 構成을 검토해서 본다면 <表 4>와 같다.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京畿地域에 있어 가장 많은 業種은 機械工業이고 다음은 織

<表 3> 企業體增加趨勢

80.12.31 現在

區 分	計		大 企 業		中 小 企 業	
	企 業 體	構 成 比	企 業 體	構 成 比	企 業 體	構 成 比
77	3,282	100%	181	100%	3,096	100%
78	5,131	156	354	200	4,777	154
79	7,035	214	352	194	6,684	216
80	7,603	232	372	206	7,231	234

資料：前掲書.

<表 4> 業 種 別

總	織 維	機 械	電 子 電 氣	非 金 屬	化 學	食 品	木 材	織 類	고 무 皮 革	其 他
7,603	906	1,408	577	405	813	527	533	230	233	1,971
100%	11.8	18.5	7.5	5.3	10.5	6.7	7.0	3.0	3.7	26.0

資料：前掲書.

維工業이며 3位로는 化學工業 등으로 構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纖維工業을 中心으로 이루고 있는 다른 地域의 業體構成과는 特異한 斷面을 보이고 있다. 특히 京畿地域은 規模面으로는 적을런지 모르나 工團의 數는 仁川을 中心으로 해서 京畿地域內에 立地條件上 여러 곳에 位置를 하고 있는데 그 現況을 본다면 <表-5>와 같다.

<表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工場入住에 있어 計劃과 實績의 隔差를 全體的으로 보아 상당히 甚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政府直轄 내지 地方工團에 비해 個人工團은 더우기 未盡함

<表 5> 京畿地域內의 工團現況

80.12.31 現在

區 分	性格	分 讓 面 積		工 場 入 住		從 業 員
		計 劃	實 績	計 劃	實 績	
計	6	3,274,834坪	2,071,834坪	1,448個	746個	80,112名
仁川地方工團	地方	325,267	325,267	45	45	8,739
仁川機械工團	"	87,713	87,713	52	52	4,011
城南1, 2, 3工團	"	383,354	383,354	167	167	28,576
韓國輸出4, 5, 6工團	直轄	434,500	434,500	154	154	29,924
半月工團	"	1,910,000	733,000	1,000	309	8,862
安城工團	個人	134,000	108,000	30	19	

資料：現況報告, 京畿支部, 1981.

을 알 수 있다. 끝으로 從業員의 實態를 살펴 보기로 한다.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大企業은 中小企業의 1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從業員數에 있어서는 거의 比等한 상태이며 女子보다는 男子의 數가 약 10萬名 정도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零細企業의 경우는 業體數에 있어서는 中小企業과 對等하면서도 從業員의 數에 있어서는 5분의 1 밖에 안 되는 文字 그대로 零細性을 못 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各業體別 從業員數는 다음과 같이 京畿地域內에 散在되어 있는 여러 地方의 業種別 工場에서 從事를 하고 있다. <表 7>에서 보듯이 業種別로 機械(1,408), 纖維(906),

<表 6> 從業員의 實態

79.12.31 現在

區 區	業 體 數	從 業 員		
		計	男	女
合 計	7,035	521,610	309,317	219,293
大 企 業	352	236,748	139,518	97,230
中 小 企 業	3,510	238,719	136,840	101,879
零 細 企 業	3,173	46,143	32,959	13,184

資料：現況報告, 京畿支部 1981.

化學(813), 電子電機(577)의 順位로 되어 있어 역시 勞動集約型的 業種이 壓倒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特色이라고 規定지을 수 있다.

<表 7> 공 장 현 황

80.12.31. 現在

구 분	시 군	계	섬	유	화	학	전·자 전 기	기	기					타	
									계	비금속	식품	목재	지류	고무	기타
총	계	7,603	906	813	577	1,408	3,899	405	527	533	230	233	1,971		
인수	천원시	1,662	139	151	96	574	702	142	111	278	41	40	90		
성남	시	256	42	11	31	21	151						151		
의정부	시	464	100	27	45	68	224	2	44	32	11	23	112		
안양	시	159	28	15	3	2	111		11	10	4	8	78		
부천	시	401	54	75	27	89	156	18	16	9	20	8	85		
양주	시	926	73	126	132	246	349	45	30	26	24	33	191		
여주	시	614	79	74	30	42	389	12	42	4	16	40	275		
평택	시	92	6			2	84	30	3	6	6		39		
화성	시	168	5	10	7	11	135		6	5	18	1	105		
시흥	시	413	26	59	40	17	271	44	29	20	32	7	139		
파주	시	456	39	92	48	103	174	28	24	32	7	18	65		
고양	시	166	23	10	13	18	102	17	13	7	7	7	58		
광주	시	300	31	53	13	45	158	38	36	48	7	16	13		
연천	시	252	64	12	19	43	114	7	16	17	1	10	63		
포천	시	67	4				63	1	3	1	1	1	56		
가평	시	88	11	1	4		72		9	1	11	4	47		
양평	시	50	3	2	2	1	42	2	13	9	2		16		
이천	시	121	8	2	4	1	106	1	6	4		1	94		
용인	시	120	7	7	5	3	98	2	19		11		66		
안성	시	324	48	31	22	31	192	2	29	3	2	8	141		
김포	시	96	8	9	8	4	67	1	8	4	5	1	48		
강화	시	161	26	37	4	27	67	17	15	9	2	5	19		
옹진	시	120	74	1	2		43		40	1			2		
반월	시	1					1						1		
	월	126	8	8	22	60	28	6		1	2	2	17		

III. 經營의 現況

여기에 說明한 內容은 中小企協中央會 京畿支部가 中心이 되어 실시한 28個業種(組合)의 60業體를 標本抽出하여 調査한 現況報告에 의거할 것을 밝혀 둔다.

參考的으로 京畿支部의 組合組職現況을 본다면 中小企業의 數 7,231個 가운데 組合員은 2,376人(33%)이고 非組合員은 4,855人(67%)으로 되어 있으며 組合員區分을 살펴 본다면

地方組合은 904(9個組合), 特定地域組合은 28(1個組合) 그리고 全國組合이 474(50個)로 構成되고 있다.

1. 雇傭狀況

지난 해의 혹심한 不況에 의해 아직도 景氣가 沈滯되고 있는 狀況 속에서 從業員의 雇傭 實態를 본다면 80年 12月 31日부터 81年 3月 31日까지의 期間에 걸쳐 雇傭人員은 1.3%의 微增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해 末보다는 4,010名의 雇傭增加를 보이고 있는데 增加를 하게 된 業體數는 25個이며, 反對로 減少된 業體數는 10個, 그리고 前年과 같은 水準에 머물고 있는 業體는 25個로 나타나고 있다. 從業員들의 初賃水準도 最低는 平均 82,328원부터 最高는 平均 151,207원으로 되어 있다. 調査對象의 業體를 中心으로 從業員의 離職事由를 볼 때 極多樣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事業減少로 인한 것이 7個業體, 賃金水準의 低位 6個業體, 他業體 스카웃이 5個業體, 職場內 人間關係不滿이 2個業體, 기타의 事故에 의한 業體는 12個로 그 內容은 結婚(女職員), 軍入隊, 轉職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 生産 및 稼動狀況

(1) 生産趨勢(前期對比)

生産趨勢에 있어서는 올해 1/4分期에 있어 3.9%의 增大를 보고 있는데 그 內容을 본다면 增加된 業體는 31個로 全體의 52%이며, 減少된 業體는 26個로서 全業體의 43%이고 80年の 下半期보다 減少된 業體는 3個로 全體의 5%로 나타나고 있다.

(2) 生産原價變動

80年の 下半期에 對比해서 올해 1/4分期의 實積을 본다면 增加된 業體는 41個로서 全業體數의 68%이고 同一한 業體는 13個로 全體의 22%이며 減少된 業體는 6個로서 全體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3) 生産施設規模

올해의 3월 31일 현재로 生産施設에 부족한 것은 16個業體로서 全體의 27%이며, 適正施設의 것은 39個業體로 全體의 65%이고, 過剩된 業體는 5個로 全體의 8%로 나타나고 있다.

(4) 生産施設不足時 增設하지 않은 理由

資金難에 의한 것이 19個業體로 全體의 68%이고 다음은 景氣展望의 不透明에 의한 것이 6個業體로서 21%이며, 賃借工場으로 인한 것이 2個業體로서 4%, 그리고 其他가 2個業體로서 7%을 나타내고 있다.

(5) 生産施設狀況

올해 3월 31일 現在로 生産施設이 良好하다고 보고 있는 業體는 39個로 全體의 65%이며 舊式施設은 16個業體로서 27%이고 老朽施設은 5個業體로서 8%로 나타나고 있다.

(6) 平均稼働率

올해 1/4分期中에 平均稼働率이 50%미만인 것은 2個 業體로서 全體의 3%이고 50%에서 70%의 業體는 12個로 20%, 70%에서 80%의 業體는 25個로 42%, 80%이상 業體는 20個로 33%이며 未詳業體는 1個로서 2%로 나타나고 있다.

3. 原資材 補給狀況

(1) 原資材調達方法

原資材의 確保는 中小企業의 稼働에 있어 先決問題가 안 될 수 없다. 지난 1/4分期 동안 調達の 實態를 보면 自社의 獨自의 購入은 44個業體로서 全體의 73%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協同組合을 통한 購入은 14個業體로 23%이고 母企業으로부터의 調達하는 業體는 2個로서 全體의 4%를 形成하고 있다.

(2) 原資材調達狀態

80년의 下半期에 對比해 본다면 原資材調達狀態가 圓滑하다는 業體는 9個로서 全體의 15%이고 매양 같다는 業體는 90個 業體로서 60%, 購入難이 11個 業體에 25%를 차지하고 있다.

(3) 原資材調達이 圓滑치 못한 事由

調達이 困難하였다는 事由를 살펴 본다면 資金難이 12個 業體로서 全體의 55%이고 國內서 生産不足이 6個 業體의 27%, 生産業者 및 流通業者에 의한 共同調達이 3個 業體에 14%이며 原資材輸出增加로 國內供給不足이 1個 業體에 4%로 나타나고 있다.

(4) 原資材購入의 代金決済條件

지난 1/4分期中 15日 以內 및 現金이 19個 業體에 全體의 30%, 15日부터 1個月이 4個 業體에 6%, 1個月부터 2個月이 22個 業體에 34%, 2個月부터 3個月이 17個 業體에 27%, 그리고 3個月부터 6個月이 2個 業體에 3%로 나타나고 있다.

4. 販賣狀況

(1) 賣出實績

80년 下半期에 對比해 본다면 賣出實績은 增加된 業體가 20個로 全體의 33%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前期와 同一하다는 業體는 24個로 40%이고 減少된 業體는 16個로 27%로 나타나고 있다.

不況의 影響으로 賣出은 停滯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2) 販賣形態

國內販賣의 경우를 본다면 市場販賣가 12個 業體로서 全體의 17%이고 都給(下請)販賣는 16個 業體에 23%, 注文販賣는 42個 業體에 60%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輸出의 경우에는 L/C受取直接輸出이 2個 業體에 全體의 10%이고 L/C受取代行輸出은 2個 業體에 10%, Local L/C輸出이 15個業에 70%, 그리고 單純下請輸出은 2個業體로 10%를 나타내고 있다.

輸出品 가운데서도 都給(下請) 去來하는 경우에는 全量을 內國信用狀을 받고 있는 것이 9個 業體로서 全體의 64%이며 가끔 받고 있는 業體는 3個로 22%이고 전혀 받고 있지 않은 業體는 2個로서 14%를 나타내고 있다.

(3) 製品價格變動

80년 下半期에 對比해서 볼 때 價格이 引上된 業體의 數는 14個로서 73%이며 引下된 業體는 2個로서 4%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製品價格이 引上되지 않았던 事由

製品價格이 引上되지 않았을 경우 引上되지 않았던 事由로는 過當競爭에 의한 業體가 29個로서 全體의 57%이며 母企業이 下請價格을 引上하는 것을 忌避한 경우가 6個業體에서 12%, 現行價格이 適正하다는 業體가 5個로 10%, 非需要期の 業體는 3個로서 6%, 그리고 政府告示價格에 의한 것은 2個 業體로 3%, 기타가 6個 業體로서 12%를 차지하고 있다.

(5) 外上販賣時 代金通常決濟期間

15日 以內的 業體數는 5個로 全業體數의 8%이고 15日부터 1個月까지가 2個 業體에 3%, 1個月 내지 2個月 以內的 業體는 2個로서 10%, 2~3個月 以內的 것은 28個 業體에 47%, 3~6個月 以內的 경우는 17個 業體에 28%, 그리고 6個月以上の 業體는 2個로서 4%로 나타나고 있다.

5. 財務狀況

(1) 資金事情變動

80년 下半期에 對比해서 본다면 好轉된 業體數는 4個로서 全體의 7%이고 前年과 같은 業體數는 30個로 全體의 52%, 그리고 惡化된 業體數는 24個로서 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金融機關의 貸出事情

貸出이 容易해 졌다는 業體는 7個로 全體의 14%이고 同一하다는 業體數는 36個로서 72%이며 어려워졌다는 業體數는 7個로서 14%를 나타내고 있다.

(3) 金融機關貸出困難의 影響

貸出의 困難으로 惹起된 影響을 살펴 본다면 原資材適期確保難이 3個 業體였으며 代金の 決濟難에 있어서는 2個 業體가 있었는데 하던 生産施設의 增·改替가 不可能하게 된 業體도 1個였으며 其他의 경우는 1個 業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 밖에 中小企業의 運營에 있어 考慮해야 될 重要한 問題는 販賣代金에 대한 決濟內容과 期間에 관한 것으로 본다. 京畿地域에 있어서 그 實態를 살펴 본다면 79년 4/4分期부터 80년 4/4分期까지의 代金決濟의 全體의인 상황이 <表 8>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現金去來는 79년 4/4分期에 있어서나 1년이 經過한 80년의 4/4分期에 있어서나 별다른 變動은 볼 수 없고, 外上去來는 여전히 壓倒的인 比重(現金去來의 약 2倍 以上)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代金決濟所要期間도 가장 많은 것이 2~3個月 내지는 3~6個月로 되어 中小企業의 資金事情을 어렵게만 하고 있다.

더우기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私債의 現況을 살펴 본다면 79년 4/4分期의 13.2%보다 1년이 지난 80년 4/4分期에 있어서는 8.8%로 減少되어 私債依存度는 줄게 되었음은 크게 多幸한 일로 본다.

<表 8> 販賣代金決濟

(單位: %)

分期別	區分	去來		決濟					
		現金	外上	15日以內	15日~1個月	1~2個月	2~3個月	3~6個月	6個月以上
79. 4/4 分期	期	32.2	67.8	7.3	13.5	26.1	35.9	15.0	2.2
80. 1/4 分期	期	28.9	71.1	5.6	13.2	22.8	33.6	22.4	2.4
80. 2/4 分期	期	28.1	71.9	3.5	11.5	23.4	31.5	27.7	2.4
80. 3/4 分期	期	27.8	72.2	4.2	9.0	22.3	33.6	28.4	2.5
80. 4/4 分期	期	32.0	68.0	5.0	10.2	23.5	33.1	26.1	2.1

<表 9> 私債의 現況

1. 他人資本中 私債構成比

1980. 12. 31. 單位: %

分期別	79. 4/4 分期	80. 1/4 分期	80. 2/4 分期	80. 3/4 分期	80. 4/4 分期
私債構成比	13.2	12.6	12.9	13.1	8.8

2. 私債月間金利

分期別	區分	50萬圓 未滿	50~100萬圓	100~300萬圓	300~500萬圓	500萬圓 以上
79. 4/4 分期		4.9	4.9	4.5	4.3	4.0
80. 1/4 分期		5.2	5.1	4.5	4.4	4.0
80. 2/4 分期		5.1	5.1	4.5	4.4	4.1
80. 3/4 分期		4.9	4.8	4.4	4.3	4.0
80. 4/4 分期		4.6	4.4	4.0	3.8	3.5

특히 私債에 대한 月間金利도 高額이 될수록 平均 4.2%인데 反해 50萬원 未滿과 같이 小額일 경우는 5.0%로서 高額보다 高位이고 銀行金利보다는 약 2倍 이상임을 생각할 때 中小企業의 資金難을 더 해 주고만 있다.

IV. 中小企業의 景氣展望

京畿地域에 所在하는 中小企業을 對象으로 앞으로 景氣에 대한 展望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보아 好轉될 것으로 모두 보고 있다. 그 內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項目에 의해 說明하고 紹介하기로 한다. 즉

1. 生 産

81년 1/4分期에 對備해서 볼 때 生産狀況은 增加될 것으로 豫想한 業體는 30個로서 平均 24.9%가 되어 있고 1/4分期와는 다를 것이 없다고 보는 業體數는 23個이며 減少가 豫想될 것으로 보는 業體數는 7個로서 平均 17.5%로 나타나고 있다.

2. 雇 傭

雇傭에 대한 展望에 대해서는 增員計劃이 없는 것은 全體數의 19個業體에 平均 18.8%이고 變動이 없다는 業體數는 41個이며 減員計劃을 갖는 業體는 多幸히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原資材價格

原資材價格이 上昇될 것으로 豫想하는 業體는 47個로 全體의 89%이며 同一할 것으로 내다보는 業體는 6個에 11%, 下落을 豫想하는 業體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原資材構入 狀態

原資材構入에 있어서도 증진과 같이 圓滑할 것이라고 豫想하는 業體는 16個로 全體의 27%이고 變動없다는 業體는 34個로 57%, 그리고 購入難이 豫想될 것으로 보는 業體數는 10個에 全體의 16%로 나타나고 있다.

5. 販 賣

販賣의 경우 먼저 輸出의 경우를 본다면 1/4分期와 同一하다고 보는 業體는 11個로서 全體의 50%이며 增加가 豫想될 것으로 보는 業體는 다같이 11個로서 50% 그러나 減少를 豫想하는 業體數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國內販賣의 경우에 있어서는 同一하다고 보는 業體數는 19個로 全體의 38%이며 增加를 豫想하고 있는 業體는 25個에 全體의 50%, 그리고 減少를 豫想하고 있는 業體數는

6個로 12%로 나타나고 있었다.

6. 製品價格

中小企業이 生産하고 있는 製品價格에 대한 反應을 본다면 變動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業體數는 36個로 全體의 63%이고 引上을 計劃하고 있는 業體는 21個에 37%이며 引下를 計劃하고 있는 業體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資金事情

資金事情에 있어서는 모두 극히 悲觀的이다. 好轉이 豫想될 것으로 보는 業體는 불과 12個로서 全體의 22%인데 反해 變動이 없을 것으로 보는 業體數는 22個에 41%이며 惡化를 豫想하고 있는 業體는 20個에 37%의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資金에 있어서는 外部資金이 必要하다고 보는 業體數는 48個에 83%이고 必要없다는 業體는 10個로 17%밖에 안 되는 상태이다.

8. 總所要資金

81년 3/4分期에 있어 總必要資金이 要求되는 業體數는 47個의 全部인데(5,328百萬元) 그 內容을 살펴 본다면 施設資金이 必要한 業體는 17個(1,095百萬元)로서 全體의 20.6%이고 運轉資金이 必要하다고 보는 業體數는 44個(4,233百萬元)로 79.4%로 나타내고 있어 施設投資를 꺼리는 現象을 벌이고 있다. 즉 投資意慾을 잃고 있는 것 같다.

9. 在庫狀況

前期와 對比해 본다면 在庫가 增加될 것으로 보는 業體數는 7個로서 全體의 19%인데 反해 同一하다고 보는 業體數는 10個로서 27%이며 減少될 것으로 展望하는 業體는 상당히 많아서 20個에 全體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景氣가 好轉될 것으로 보는 業體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甚 樂觀的 展望이다. 지난 3月末 在庫의 適正水準量을 調査한 바에 의하면 適正在庫를 超過한 業體數는 27個로서 全體의 73%인데 反해 適正在庫를 유지한 業體數는 불과 8個로서 22%로 나타나고 있으며 無應答의 業體도 2個로서 5%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諸項目에 걸쳐 調査集計한 景氣의 展望에 따르면 比較的 緩慢하나 好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것은 甚 鼓舞的인기는 하나 이에 反해서 施設에 의한 投資를 하겠다는 業體數는 극히 僅少하다는 상태를 볼 때 결코 展望과 行動이 一致되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한다.

中小企業은 그 자체의 制約性으로 인해서 全般的인 景氣가 好轉되지 않고서는 經營의 圓滿을 기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 輸出中心의 企業이라기 보다는 대부분 國內市場을 대상으로 過多한 生産에 過當競爭을 하다 보니 零細規模의 業體는 大企業과의 競爭 등의 試鍊도

겪어야 하므로 全體의 存續과 維持마저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본다.

V. 中小企業의 問題點

現在 京畿地域에 位置하고 있는 中小企業이 當面하고 있는 共通의인 問題點을 본다면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겠다.

원래 中小企業은 大企業에 比하여 資本技術, 市場競爭力 그리고 經營管理方式 등에 있어서 劣勢와 落後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育成發展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아직까지 大企業과의 隔差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問題點의 所在에 있어서도 각 부분에 걸쳐 擴散되고 있다고 본다. 먼저 順位대로 問題點을 列擧해 본다면 販賣不振이 32業體로서 全體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壓倒의으로 높다. 80년의 酷甚한 不況으로 인해 모든 企業이다 같이 겪어 왔던 問題이기는 하지만 中小企業에 있어서는 더욱 그 深渡가 크다고 본다. 다음은 販賣代金の 回收遲延이 31業體로서 全體의 27%인데 京畿道 機械工業協同組合에서 代表적으로 建議한 內容을 본다면 ① 下請代金 어음期間은 종전의 90日에서 60日 이내로 短縮해 줄 것과 ② 어음支給期間은 物品을 納品한 날로부터 계산해 줄 것 등을 建議하고 있는 바 이것은 다름아닌 代金回收를 빨리 함으로써 運營上의 資金隘路의 負擔을 덜어 달라는 要望으로 본다.

다음은 原價上昇에 따른 製品價格轉嫁 不能이 27個 業體로 全體의 24%의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轉嫁가 안되는 原因으로는 對外的으로는 政府에 의한 規制와 大企業과의 下請關係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對內的으로는 景氣沈滯에 따른 需要減退와 市場競爭의 不利로 인한 販賣克服을 위해서 原價의 上昇을 당장에 製品의 販賣價格에 다 轉嫁시킬 수 없다는 데서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본다. 다음은 在庫累積問題인데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業體數는 7個로서 全體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販賣不振과 關聯되는 問題이기는 하나 在庫累積으로 資金上의 壓迫을 못 면한다는 것은 더우기 業體의 經營을 困難하게만 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다음은 外部資金의 調達難을 들 수 있겠는데 이로 인해서 問題가 되고 있는 業體의 數는 7個로서 全體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원래 零細資金에 의해 運營되고 있는 中小企業이 販賣不振과 代金回收遲延등은 資金難을 더욱 加重시키고 있으며, 中小企業 運營上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더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擔保能力과 信用能力의 限界로 인한 外部資金의 調達은 결코 容易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은 輸出不振問題이다. 外部로부터의 注文이 減少된 業體數는 6個에 全體의 5%를 차

지하고 있어 종전과 같은 圓滑한 注文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輸出用品을 生産供給하는 業體로서는 계속적인 注文이 있어야만 차질없는 正常稼動이 可能하기 마련인데 지난해의 不況으로 인해서 業種에 따라서는 受注上의 隘路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끝으로는 原料適期確保問題를 지적할 수 있다. 이에 속하는 業體數는 4個로서 全體의 4% 밖에 안 되긴 하나 適期에 原資材의 供給이 안된다는 것은 企業의 稼動을 어렵게 하기 마련이다. 業體數를 보아서는 작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지만 必要資材의 備蓄이 마련되어 繼續的인 生産을 阻害하는 所在를 除去해 나가는 것이 소망스럽다.

이상과 같은 諸問題가 調査對象의 業體로부터 提起된 問題點으로서 이러한 隘路事項은 程度의 差는 있겠지만 모든 中小企業에 걸쳐서 共通的으로 안고 있는 現實的인 問題라고도 볼 수 있겠다.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 「中小企業問題는 陳腐하고도 새로운 問題」라고 하였듯이 이와 같은 여러가지 經營上의 問題는 항상 中小企業의 周邊에 도사리고 있는 問題이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問題를 解消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中小企業問題는 다시 惹起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企業主體的인 側面에서 中小企業의 經營에 關聯된 구체적인 問題를 列擧하였지만 보다 巨視的인 側面에서 볼 때 中小企業의 育成을 위한 보다 幅넓은 對策樹立이 緊要하다고 본다.

그것은 現在 우리나라 中小企業이 다 같이 當面하고 있는 諸般問題 즉 ① 施設의 近代化 ② 企業化投資 ③ 經營 및 技術能力의 向上 ④ 企業合併 및 事業轉換計劃 ⑤ 系列化의 活性化 ⑥ 中小企業과 大企業間의 事業調査 ⑦ 協同組織의 強化 ⑧ 共同事業의 擴大 ⑨ 金融支援과 稅制改善 ⑩ 輸出增大方案의 推進 ⑪ 諸般行政節次의 簡消化 등의 問題들이 合理的으로 잘 解決을 지어야만 된다고 믿는다.

工團의 問題點 一覽表

工團名	所在地	施行者	工團造成動機	土地 買收現況	園地規模	支援施設	入住現況
安城示範工業團	安城郡 大德 地面 乾芝里	韓國土地開發 公社	業界 및 政府의 協調	買收畢	176,366坪	取水場, 上下 水道 淨水場 施設 完	16個業體 既 分讓 106,108 坪 未分讓 30,079坪
半月鑛金園地	華城郡 半月 地面 八谷2里 50番地	鑛金人協會會	서울市內所在 28個業體의 地 方移轉을 위하 여 造成	買收畢	12,000坪		28個業體
鄉南地區 製藥工業園地	華城郡 鄉南面 上 新里	韓國 藥品工 業協同組合	業界에서 自發 的으로 造成	買收畢	200,000坪		入住希望業 45體 個業體
廣州文具아 트型工場	廣州郡 實村 地面 三里	(株)大韓文具 産業社 (事業 推進을 위하	商工部 協同化 事業 實踐計劃	買收畢	地 3,333坪 建 2,754坪		入住豫定業體 25(組合員:2, 非組合員:23)

		여 會社設立)							
利川石製品 工 團	利川郡 大月 面 송라리178 番地	石製工業協同 組合理事長	同	上	買收畢	63,000坪			入住豫定業 體: 24
金浦中小團地	金浦郡 黔丹 面 麻田里	中小企業振興 公園	中小企業振興法 에 의한 協同化 事業中集團化事 業으로 造成		未買收	120,000坪			入住豫定業 體: 20~22個
城南工業團地	城南市 上岱 院洞	城南市	都市計劃法上 一團의 住宅地 造成事業 施行 에 따라 工團 造成		未買收	483,862坪	工業用水 1日 15,000屯 電 力: 1日 400, 425KW/H		165個業體入 住
仁川機械工業 團 地	仁川市 道禾 洞	仁川市	上地區調 整理 事業 施行에 따 라 工團 造成		買收畢	87,000坪			52個業體入住
仁川地方工團	同	上	同	上	同	上			44個業體入住
韓國輸出 6 工 團	仁川市 朱安 洞	仁川輸出產業 公園	輸出產業工業團 地開發造成法에 의하여 造成		同	上	86,000坪		34個業體入住
韓國輸出 4, 5 工 團	仁川市曉星洞 仁川市佳佐洞	同	同	上	同	上	347,000坪		117個業體入 住

工團指定區分	共同施設	造成進捗狀況	問題 點	其他參考事項
建設部 都市計劃法 都市計劃法上 工業地域	下水終末處理場設 置豫定 廢水處理場建設完	81年 5月末 工檢 査豫定 造成畢	工業開發勵勤地區外에 . 所 在하여 租稅惠澤全無, 大 都市內 所在工場의 地方稅 5倍 重課稅 該當	分讓價格: 坪當 55,000원 移動: 5個業體
工業開發獎勵地 區指定(建設部)	公害防止施設豫定	未着工 建築工程 35% 未着工	없음 買收畢한 土地中 23,000坪 이 絕對農地區域에 屬하여 農地轉用許可를 얻지 못하 고 있음.	地方施設移轉에 따라 租 稅減免惠澤을 받을 수 있음. (華城郡南面은 大都市가 아님) 文具組合은 關與치 않음
都市計劃外 建設部 都市計劃法	廢水處理場 設置 豫定	81年 8月부터 用 地買收豫定 造成畢	大都市內 工場으로 地方稅 5倍重課稅 81.1.1~81.12. 31까지 時限附로 5倍重課 稅 保留	金浦郡과 土地買收協約 締結推進中
京畿道에서 工團指定認可		造成畢	同 上	
同 上		同 上	同 上	
同 上		同 上	同 上	
同 上		同 上	同 上	1973. 4.1. 以前에 工團 指定되었기 地方稅 5倍 重課稅에 該當되지 않음

이와 같은 諸問題들의 解決이란 물론 急進的으로 性急하게 解決될 수도 없겠지만 中小企業이기 때문에 항상 부수되는 問題點입을 認識해서 着實하게 그리고 持續的으로 점진적인 解決을 추진시켜 나가야만 된다고 본다. 81년의 中小企業을 위한 事業計劃에서 明示되었듯이 中小企業存立基盤의 再整備와 國際競爭力의 強化 그리고 企業의 社會性 提高 등을 위해서는 꾸준한 政策的인 育成과 指導 그리고 效率的인 支援을 끈기있게 추진시켜 나가야만 된다고 본다.

VI. 改善方向

中小企業에 대한 問題의 解決은 現實的으로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問題들을 한꺼번에 一時的으로 解決하려거나 아니면 多發的으로 性急하게 政策樹立하려고 생각해서는 결코 所期의 目的達成과 成果期待는 대단히 어렵다고 본다. 한마디로 中小企業이라고 하더라도 業種과 規模, 地域의 特性, 그리고 經營體의 沿革과 背景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절한 對應措置를 강구해 나간다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中小企業에 대한 改善을 위한 課題로 오늘날까지 일찍부터 中小企業의 協同化와 現代化 그리고 國際化와 中小企業의 體質改善 등에 대해서 많은 強調과 함께 當面한 隘路打開을 위해서 即時的으로 克服해서 나가야 된다는 등의 주장들이 여러번 되풀이 되어 왔었지만 아직까지도 根本的인 解決을 보지 못한 채 여전히 課題로서 남고 있는 것이 現實의 中小企業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中小企業의 改善을 위해서는 共通的인 方向으로서 첫째 中小企業의 發展을 促求하는 諸般의 阻害要因을 段階的이며 體系的으로 着實하게 解決해 나가는 政策 및 經營者의 꾸준한 努力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본다. 政策의 貧困 내지 빈번한 政策變動은 改善을 위한 一貫성과 均衡성을 잃게 하기 마련이다. 앞에서 列擧한 中小企業에 관한 問題들을 解決하려면 보다 意慾的이며 合理的인 바탕 위에서 繼續的이며 未來指向的인 改善의 意志가 확고하게 서 있지 않고서는 안된다. 둘째로 地域別 中小企業의 自主的인 發展을 助成할 수 있는 政策的인 支援이 절대적으로 必要하다. 外貨稼得率이 높은 特殊한 地域企業에 대한 支援은 企業의 自主的인 競爭力을 培養하게 하고 地域開發의 主導的인 經濟能力을 造成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1980년에 있어 中小企業에 대한 特定資金配定의 內容을 볼 때 一般中小企業資金 5,000억원 가운데 京畿道에 配定된 金額은 19%인 955億이었다. 先進國의 경우 中小企業部門 支援에 대한 그 實態를 본다면 政府豫算의 10%水準의 規模인데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불과 1.3%밖에 안되어 先進國의 10分の 1水準밖에 안되

고 있다. 이 未洽된 部分을 補完하기 위해서라도 地方自治團體에 있어서도 中小企業育成基金 造成을 義務化해야만 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中小企業에 대한 財政과 金融支援은 全無하거나 극히 미약한 現實이기도 하다. 세계로는 中小企業特別資金의 金利引下와 資金貸出 및 어음 割引率의 上向調整이 필요하다고 본다. 京畿地域의 中小企業들의 共通的인 建議事項을 본다면 「資金難에 대한 支援」을 가장 優先順位로 들고 있다.

資金支援에 있어서는 一次的으로 配定金額을 增大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配定받게 될 또는 配定받은 金額에 대한 金利引下와 어음 割引率을 높인다는 것은 資金上的 負擔을 덜게 하는 중요한 方法이기도 하다. 中小企業 特別資金의 支援金利差도 현재 一般 中小企業 資金은 0.5%이고 低利資金은 1.5%에 지나지 않다. 營農과 營業資金이 15%인 것을 감안한다면 特別 資金의 金利도 一般中小企業資金의 現行의 19.5%에서 16.5%로 낮추게 하고 中小企業特別低利資金도 18.0%에서 15.0%로 각각 3%정도 引下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市中銀行의 中小企業에 대한 現行 貸出義務比率도 35%를 45%로 上向調整해야 하고, 어음割引比率도 短資會社의 現行 30%에서 40% 水準線까지 上向調整을 해서 資金調達の 便宜를 최대로 봐 주어야 한다고 본다.

네째로는 中小企業의 問題解決을 위한 理論的 啓導的 내지 統計的인 整備가 갖추어져야만 한다. 특히 地域的인 事情으로 因한 中小企業의 阻害要因에 대한 診斷과 經營者 및 從業員들에 대한 技術開發을 조성할 수 있는 制度的인 措置가 講究되어져야 하며 中小企業에 관한 統計의 正確성과 計數에 대한 管理를 徹底하게 할 수 있는 體制가 確立되어져야만 한다. 「企業은 사람」이라고 일찌기 말하였듯이 有能한 人材養成을 위한 啓導的인 措置와 現地中小企業에 관한 文獻과 資料와 統計가 體系의으로 整備되어져야만 된다. 中小企業 經營의 어려운 點은 우리는 흔히들 資金難을 가장 큰 要因으로 들고 있지만 실은 이보다 더 重要한 問題는 「人材의 貧困」에 있다고 본다.

有能한 中小企業人이 輩出될 수 있도록 教育과 訓練을 통해서 經營專門人을 制度的으로 養成해 나가도록 推進하는 政策이 切實하다고 본다.

다섯째는 비단 京畿地域의 中小企業에 국한된 問題는 아니지만 中小企業의 自主的인 發展을 造成하는 根本的인 對策 수립이 必要하다고 본다. 日本과 같이 製品의 專門化의 特殊化등에 의해 市場競爭力을 強化하고 企業의 自立度를 提高하게 할 뿐만 아니라 部門 및 部分工程의 品質管理를 철저히 함으로써 大企業과의 系列化를 圓滑하게 促進하고 中小企業과 大企業과의 有機的인 補完關係를 갖도록 해야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產業組織의 과감한 改編과 產業構造의 合理的인 轉換을 위한 政策的인 支援이 있어야만 된다. 大企業은 素

材産業과 組立産業部門을 中心으로 進出해 나가도록 하고 中小企業은 部品 및 特殊品の 生産에 專門化 내지 技術化해서 分業的인 體制로서 改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大企業과 中小企業과의 각 專門的이며 技術的인 連繫關係를 통해서 國際化 指向的 經營을 한다면 輸出競爭力도 補強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外貨稼得率도 提高될 것으로 본다. 이제까지 中小企業은 雇傭機會提供, 地域經濟發展, 消費生活向上 등에 큰 比重을 차지해 왔었지만 앞으로는 外貨獲得과 技術開發, 創造性發揮 등의 機能을 擴大시켜 輸出産業으로서의 地位를 높여 나가야만 됨으로 우리나라 産業의 技術集約化에도 中小企業의 役割은 莫重하게 될 것으로 본다. 현재까지 中小企業은 政府支援의 未洽과 自主의 精神의 薄弱 그리고 革新的 開發能力發揮의 未洽 등으로 인해 다소 沈滯된 狀況下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活力있는 多數로서 國民經濟發展에 絶對的인 寄與를 할 뿐만 아니라 福祉社會實現을 하는 데도 積極적인 貢獻을 할 것으로 본다.